

§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한 농가에 세 들어 살고 있던 어떤 한 구두장이의 이야기다. 이들 부부는 매우 가난해서 외투도 나눠 입어야 하는 형편이어서,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 양가죽 외투를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에 가을부터 돈을 열심히 모았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마을 농부들에게 뒀던 돈도 있고 해서 어느 날 구두장이는 외투를 살 생각으로 외출한다. 그런데 구두장이는 외상을 주었던 돈을 받을 수 없었고, 양가죽도 외상으로라도 사고자 했으나 거절당한다. 상심한 구두장이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보드카를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다. 술기운에 따듯해진 구두장이는 자신의 현실을 투덜대며 길을 걷는다.

그가 교회 근처를 지나갈 때 그는 교회 뒤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보았고,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다. 그런데 사람이 교회 벽에 기대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였다. 그런데 그 사나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무서워진 구두장이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걸음을 재촉해서 교회 앞을 지나려고 하다가 문득 양심에 걸렸다. 구두장이는 그 사나이가 봉변당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해서 다시 그 사나이에게 되돌아간다.

구두장이 세몬은 별거숭이 상태의 사나이에게 자신의 털장화, 외투 등을 벗어서 입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 사나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신의 벌을 받았다고 말한다. 세몬은 자기 부인인 마트로나에게 엄청난 야단과 잔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쳐다보던 그 사나이의 시선에 마음이 유쾌해져 집으로 돌아간다.

마트로나는 남편의 저녁을 준비해두고 남편이 외투를 잘 사 올지를 걱정하며 남편의 외투를 기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고 왜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화가 잔뜩 나서 집을 나가려던 마트로나는 결국 그 사나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남편 세몬의 설명이 있었고, 마트로나는 저녁 식사를 이들에게 차려주게까지 된다. 마트로나는 그 사나이가 가엾게 생각되었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기쁜 표정을 짓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해 설명한다. 이에 마트로나는 그에게 옷도 주고 잡자리도 만들어 준다. 이튿날 세몬은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그 사나이에게 밥벌이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구두 만드는 일을 시키기 시작한다. 미하일은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다고 일 시작했는데 상당히 능력이 있었다. 세몬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금방 배워서 일을 잘 했다. 부지런히 일하고 식사는 조금만 하는 훌륭한 일꾼이 된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면서 미하일은 뛰어난 보조공으로 소문이 자자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구두 가게에 손님이 많아지게 되어 세몬은 수입이 늘게 된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날 한 손님이 가게에 찾아온다. 그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다. 이 손님은 아주 좋은 가족은 가지고 와서 자신의 발에 맞는 구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그 손님은 세몬에게 일 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이 변치 않는 장화를 만들 것을 요구하며 만일 일 년 안에 구두가 망가지면 세몬을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성공적으로 구두가 일 년 이상 모양도 변하지 않고

찢어지지도 않으면 삶으로 많은 돈, 10루블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 액수는 세몬이 부인과 공동으로 입으려고 사려고 생각했던 가죽 외투를 사고도 남는 액수다.

세몬이 망설이자 미하일이 주문을 받으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 손님이 떠난 후 세몬은 걱정에 휩싸여 일을 미하일에게 시킨다. 그런데 미하일은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재단하는 것이었다. 마르티나 역시 놀라서 보기만 할 뿐 참견하지는 않는다. 세몬은 놀라서 미하일에게 뭘 만드느냐고 따져 묻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손님의 하인이 뛰어 들어와서 그 손님이 죽어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 가족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 후 다시 세월이 지나 미하일이 세몬과 같이 살게 된 지 육 년이 된다. 어느 날 식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내 아이 하나가 미하일에게 창밖으로 한 부인이 두 여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라고 하자 미하일이 그것을 본다. 구두 가게에 온 손님들이다. 두 여자 아이 가운데 한 아이는 다리를 약간 절룩거리며 걷고 있었다. 한 부인이 두 여자 아이들의 구두를 맞추려고 온 것이다. 그런데 미하일은 두 여자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두 아이들을 아는 듯이 보고 있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인은 이 두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었다. 부인은 자신의 아이를 잃고 두 아이를 기르게 된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는 두 아이가 태어나기 사흘 전에 죽고,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하루도 못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부인과 아이들의 부모는 이웃이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숲에서 일하다 큰 나무가 쓰러지며 다치게 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며칠 후 아이들의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고 세상을 역시 떠난다. 이웃이었던 그 부인이 그들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쌍둥이만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아이들의 어머니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 한 아이에게 쓰러져 그 무게에 짓눌려 아이의 다리가 못쓰게 되었다. 이 후 쌍둥이들의 젖을 줄 사람이 그즈음에 아들을 낳았던 그 부인 밖에 없었다. 해서 그 부인이 임시로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게 된다. 아이 셋을 키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부인의 아들은 2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부인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그 부인의 집안 살림은 넉넉하게 되어 아이들을 여유 있게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느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군요!”

세몬과 마르티나 그리고 그 부인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미하일이 앉아 있는 구석에서 섬광이 비쳐와 방을 환하게 밝아지게 된다. 미하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위를 쳐다보면서 싱긋 웃고 있었다.

이후 그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고 미하일은 세몬과 마르티나에게 자신이 하느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그들도 자신을 용서해 주길 요청한다. 세몬은 미하일이 웃으며 표정이 밝아졌던 세 번의 순간들을 언급하며 설명을 요구한다. 세 번은 마르티나가 미하일이 처음 자신의 집에 왔을 때, 부자가 장화를 주문할 때, 그리고 두 여자 아이들을 보았을 때이다.

미하일의 이야기 즉 손,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벌을 받은 천사다. 하느님이 한 여자

에게서 영을 거두어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바로 그 아이들의 엄마다. 그녀는 아이들이 부모없이 살지 못한다며 자신을 살려줄 것을 애원한다. 미하일은 결국 그녀의 영을 데려가지 못한다. 그러자 하느님이 미하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산모의 혼을 데려올 것을 명령한다. 즉 “다시 내려가 산모의 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뜻을 깨닫게 되리라. 즉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그것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미하일은 두 날개가 부러져 하늘나라로 못하게 되어 지상에 떨어져 길바닥에 있었던 것이다. 천사에서 인간이 된 미하일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잠겨 있어서 교회 뒤에 앉아있었던 것이다. 그때 세몬이 미하일을 발견한 것이다.

미하일은 마르티나 얼굴에서 처음에는 죽음의 입김을 품으며 사나웠는데 자신에게 저녁밥을 권하며 자기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그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도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얼굴에서 신의 얼굴을 발견해서 싱긋 웃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미하일은 그 얼굴에서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덩치큰 손님이 구두 가게에 왔을 때 미하일은 그 손님 등 뒤에 자신의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것을 보았다. 해서 미하일은 손님이 일 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자신이 그날 저녁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에 미하일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데 바로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가’하는 지식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여자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인이 타인의 아이로 인해 눈물을 흘렸을 때 거기에서 살아 계신 신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미하일은 말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싱긋 웃었다는 것이다.

천사로 변한 미하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써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므로.”

## § 플라톤의 《향연》

플라톤의 많은 대화편 가운데 《향연》은 아카톤의 집에서 있었던 향연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이로스, 사랑에 대한 연설을 다루고 있다. 향연에 있었던 얘기가 이중적인 화법으로 전개돼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의 특징적인 성격과 모습이 간결하게 제시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에로스 찬양을 담론의 주제로 삼자는 에릭시마코스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에로스에 관해 알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점이다. 사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다루는 주제에 대해 어떤 적극적인 답을 제시하는 대신에 스스로 무지를 자처하면서 상대방이 가진 의견의 불충분함과 한계를 폭로하는 것이다. 결국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에로스, 사랑에 대해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 묘사된다.

에릭시마코스가 담론의 주제로 에로스 찬양을 제안한다. 이유는 위대한 신 에로스 에 대한 찬가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찬양 연설엔 일정한 형식이 있었다. 찬양 연설은 고대의 모범적인 수사술의 한 형식이다. 향연도 이 양식을 따른다. 1. 찬양 대상의 기원 또는 혈통, 또는 고귀한 출생, 2. 힘이나 아름다움 같은 좋은 자질, 3. 지혜, 정의, 용기와 같은 덕과 명성을 얻는 행위 4. 생활 습관이나 방식, 5. 업적들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설은 신을 숭배하고 신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관계임을 전제한다.

에로스(사랑)의 찬양연설은 파이드로스, 파우사니아스, 소크라테스 등으로 이어진다. 파이드로스가 연설을 시작한다. 파이드로스의 연설은 빈약하다. 논증의 방법은 일관성이 없고 소피스트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평가된다. 파이드로스가 말하는 에로스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내용을 좀 보면, 경이로운 신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으로 우리에게 있는 최대로 좋은 것들의 원인으로 본다.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스는 빈 공간인 카오스와 땅, 가이아에 이어서 등장하는 신이다. 이때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주의 원동력'이다. 가장 오래된 신으로 에로스를 보는 것은 에로스에게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파이드로스는 이유로 제시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심지어 소크라테스 역시 메니스와 포로스의 아들로 에로스를 말한다.

에로스가 가장 좋은 것들의 원인이라는 것은 덕과 행복이 아름다운 삶, 잘 사는 삶의 요체인데 파이드로스는 명예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에서 요구되는 군사적인 용기와 덕을 내세운다. 파이드로스 에 따르면 사랑하는 애인 사이에서 수치심이나 명예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작용하므로 애인들 간에는 서로를 의식하면서 수치스러운 이들을 멀리하고 명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발하게 하며 죽음까지 감수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는 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파이드로스가 이야기하는 애인 관계는 남자 성인과 소년 간의 동성애다. 또한 파이드로스는 에로스가 자기 희생정신을 고취시킨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여자들까지 포함시킨다.

파우사니아스는 에로스가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라며 파이드로스의 연설을 바로 잡는다.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을 통해 우리가 받는 인상은 사랑하는 자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파우사니아스는 범속의 에로스와 천상의 에로스를 구분하고 찬양되어야 할 에로스를 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에로스는 추구하는 목적에서 구별되며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들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다. 범속의 에로스가 추구하는 목표는 순전히 육체적인 것, 성욕을 채우는데만 몰두할 뿐 덕에 신경쓰지 않는다. 천상의 에로스도 육체적이지만 덕과 훌륭한 성품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 에로스는 이성적이며 훌륭한 인품을 키워나갈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구애 대상도 그에 맞게 여성은 피하고 건장하고 지성을 갖춘 자를 찾는다.

향연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성애와 덕의 연관성에서 강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나이든 남자와 젊은 소년 간의 성애 관계인데 이 관계는 나이든 남자가

젊은 남자를 주도하여 덕을 가르치는 것이다. 파우사니아스는 이중적 에로스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향한 혼의 충동(욕망)이라고 생각한다.

에릭시마코스의 연설에서는 에로스가 자연 전체로 확장된다. 우주적 원리로서의 에로스가 다루어진다. 에로스는 의술, 체육술, 농사 기술, 음악(시가), 천문학 그리고 예언술 등 다양한 기술들의 토대가 되는 우주적 원리로 본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에릭시마코스의 우주론적(자연주의적) 에로스관을 교정한다. 즉 그는 에로스를 세계의 진행에 작용하는 이중의 우주적 힘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는 단일한 힘으로 간주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시인으로 인간의 본성과 그 조건을 다루는 신화에 의지해서 자신의 에로스관을 펼친다. 그는 에로스가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음을 주장한다. 에로스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모두 상실한 본성의 온전함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인간 본성의 치유자로서 에로스를 제시한다. 인간의 남성과 여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성을 함께 갖춘 ‘남녀추니’까지 세 부류가 있었다는 신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연설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제우스가 양성을 지닌 남녀추니의 능력이 뛰어나 신을 위협하게 되자 남녀추니를 반으로 나누어 버린 것에 의해 이후 인간은 자신의 반쪽과 하나가 되려는 욕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에로스라고 한다.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만났을 때는 사랑의 결속이 가장 강해서 서로 떨어지려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결합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온전해지려는 갈망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서 아가톤은 에로스의 기원, 에로스의 훌륭한 성질들, 특히 아름다움을 언급, 에로스의 덕들에 대해 언급한다. 에로스를 장식하는데 치중하는 연설이다. 가장 행복한 신 에로스, 에로스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 1. 신들 중 가장 젊다. 2. 섬세하다. 3. 유동체의 형태를 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혼 전체를 완전히 감싸며 몰래 혼 속으로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균형미를 지녔다. 우아함. 5. 형색이 아름답다. 아가톤은 네가 주요 덕, 즉 정의, 절제, 용기, 현명함(지혜)를 에로스에게 돌린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세속의 에로스가 추구하는 방식의 동성애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랑을 하는 이들이 동성애를 비난거리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여러 나라의 법을 살펴보며 자신의 논의를 펴나가는데 간략하게 소크라테스의 에로스론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제시된다.

우선 소크라테스는 에로스가 관계적인 것이며 결핍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계 개념으로서의 에로스. “에로스가 어떤 것의 에로스라고 할 만한 그런 자인가, 아니면 그런 것의 에로스도 아니라고 할 만한 그런 자인가?(199d)

소크라테스는 먼저 ‘어떤 것의’ 에로스라고 할 때 어떤 것‘의’라는 속격의 의미를 명료화한다. 이 속격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뜻하지 않고 반대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대한 자식의 사랑을 뜻하지도 않으며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지도 않는다. 아버지나 형제라는 말

은 언제나 누구의 아버지 또는 누구의 형제인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데 에로스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의’ 에로스이다. 이 관계 개념은 어떤 특정한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누이가 아니라 아버지 자체, 형제 자체이다. 즉 아버지인 한에서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인 한에서의 모든 어머니이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관계 개념으로서의 에로스는 어떤 특정한 에로스가 아니라 에로스인 한에서의 모든 에로스이다.

욕망으로서의 에로스 : 에로스가 ‘어떤 것’을 욕망한다고 할 때 에로스는 그 어떤 것을 아직 갖지 않은 상태. 따라서 ‘어떤 것의 에로스’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도, 그리고 욕망하고 있는 다른 모든 자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과 곁에 있지 않은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그 자신이 아직 아닌 것과 그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네. 욕망과 사랑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다.”(200e)

아름다운 것을 결여한 에로스: 파이드로스는 사랑하는 자를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한다. 아카톤 역시 에로스를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찬양한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교정하고자 한다. 만약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에로스라면,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아름다운 것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에로스를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좋은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름다운 것을 결여하고 있는 에로스는 좋은 것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 고유의 에로스에 대한 생각은 여사제인 디오티마(201d-212 a)를 통해 드러난다. 즉 에로스는 아름답지도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추하거나 나쁘지도 않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욕망이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은 풍요와 빈곤 사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풍요와 빈곤 이 둘, 양극단의 성격을 모두 가지지만 어느 한 곳에 속하지는 않는다.

디오티마는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생일날, 풍요의 남신 포로스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자고 있을 때 빈곤의 여신 페니아에 의해 동침이 이루어져 이 둘 사이에서 에로스가 태어났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에로스는 풍요와 빈곤, 존재와 비존재,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 앓과 무지 등등의 ‘사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풍요, 존재, 선, 아름다움, 앓 등등을 갈망하는 존재이다. 에로스는 존재가 자신의 결핍을 채워나가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욕망은 철저한 풍요나 철저한 가난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부자는 어떤 욕망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욕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욕망 자체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식에 대한 욕망은 철저한 무지와 완전한 인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플라톤에 따르면 욕망에는 방향이 있다. 욕망은 지향적이고 욕망이 지향하는 방향은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다. 즉 에로스는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존재와 무의 이원성 사이에

서 운동하고 운동은 언제나 추에서 미로, 악에서 선으로 무에서 존재로 방향을 잡는다. 그 반대로 욕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플라톤에게 인간이 아름다움과 좋은 그리고 존재를 추구하고 추함과 악과 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에로스는 운동이고 수직 상승 운동이다. 언제나 아름답고 선한 진리의 세계, 천상의 세계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승의 단계는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상승이다. 디오티마는 육체의 아름다움, 혼의 아름다움, 법과 관행의 아름다움, 지식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 오름길의 마지막 목표가 아름다움 자체다. 앞의 모든 단계들은 이것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지적인 직관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갑자기’ 알려지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성을 초월한 것이다.

디오티마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뿌리 깊고 가장 큰 욕망, 곧 에로스는 불멸의 욕망이다. 아름다움, 선, 존재 등등은 모두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에로스는 그런 불멸을 꿈꾸는 존재다. 불멸을 향한 에로스, 그것은 죽지 않는 불멸의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디오티마에 따르면 에로스 그 자신이 신은 아니다. 신이 되고자 욕망할 뿐이다. 그래서 디오티마는 에로스가 신도 인간도 아닌 그 사이 존재, 반신, 정령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로스, 곧 사랑이다. 디오티마에 의하면 에로스 행위의 일차적인 의미는 섹스다. 사랑은 섹스로 이어지고 섹스를 통해 사랑이 확인된다. 자식을 낳음으로 인간은 불멸할 수 있다. 그런데 디오티마에 의하면 섹스에는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섹스도 있다. 영혼 역시 섹스를 통해 새로운 영혼의 잉태와 출산을 반복한다. 이것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만나 어떤 영감을 받고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 새로운 산물을 창작하는 과정이기도하다고 할 수 있다.

디오티마는 육체적 섹스에서 영혼의 섹스를 유추한다. 하지만 이 둘이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영혼에는 남녀의 성적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영혼은 영혼의 정액과 난자 그리고 자궁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파트너보다 아름답고 더 선하고, 존재 밀도가 높은 영혼만이 영혼의 정액을 선사할 수 있다. 강한 타자에게서 온 영혼의 정액과 자신의 난자를 결합하여 창조해낸 것이 영혼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것을 길러내는 곳이 영혼의 자궁이다. 영혼의 자식은 육체의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그런 영혼의 자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술작품이다. 결국,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근본적으로 에로스, 즉 불멸의 욕망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연》이 미학의 중요 텍스트로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다.

플라톤에게 에로스는 불멸을 지향한다. 불멸의 신적 존재를 지향한다. 플라톤에게 영혼은 이미 천상의 세계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신적인 영혼이다. 이데아의 세계에 살았던 영혼이다. 결국, 플라톤이 말하는 에로스는 자기의 불멸을 희구하는 ‘자기 사랑’으로 귀착된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자기 사랑(자기애)’가 사랑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이 사랑의 증세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살펴보자. 플라톤은 영혼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며,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하고 영혼의 윤회를 긍정한다. 따라서 플라톤은 사랑하는 아름다운 대상은 이미 천상 어딘가에서 만났던 적이 있다고 본다. 그

래서 우리가 그 대상과의 첫 만남이라 여기는 것도 사실은 오랜만의 감격스러운 재회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첫 만남의 황홀과 갑작스런 친밀감의 신비를 해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대상을 깊이 사랑하고 알아갈수록 점차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플라톤은 생각한다.

플라톤은 사랑의 첫 징후를 연인의 신격화에 따라 나오는 두려움과 전율 그리고 경외감으로 제시한다. 플라톤이 제시하는 두 번째 증후는 뜨겁게 분출하는 정열, 효모가 발효하듯 작고 많은 감정이 우글대며 들끓는 초조와 불안, 간지럽게 자극하며 안절부절못하게 만드는 감정, 곧 들뜬 설렘이다. 그 다음 증후는 기쁨과 고뇌, 환희와 불안, 생기와 우울 등등의 상반된 감정들이 교대로 일어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중증 사랑 병에 걸릴 경우,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예의범절을 무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구들의 존재마저 망각한다고 한다. 플라톤은 이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의사는 사랑하는 연인뿐이라고 못 박으며, 사랑과 광기를 연결한다.

## §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사랑과 욕망을 구분하며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신에 훌륭한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사랑은 아주 순수해서, 자식에게서 아무것도 소유하려 원하지 않고, 자식을 그가 하는 것과 다르게 그들을 소유하려 들지도, 그들이 이미 그런 것보다 더 밀접하게 자식에게 결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들을 다른 자신들(제 2의 자신들)로 고려하면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자신의 것과 같이 혹은 한층 더 큰 염려로 추구한다. 왜냐하면 그와 자식이 그가 최고의 부분은 아닌 하나를 만든다고 표상하면서 그는(아버지는) 자신의 것보다 자식들의 이익을 선호하고, 자식들을 구하기 위하여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친구에 대해 갖는 애정은, 그것이 드물게 아주 완벽함에도 불구하고(할지라도), 이것과 동일한 본성을 갖는다. 그리고 그들이 애첩에 대해서 갖는 애정은 그러한 성질을 많이 떠나 약간의 다른 성격도 지닌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는 사랑의 형태 가운데 단순한 애정, 우정 그리고 헌신을 구분한다. 우리는 사랑의(사랑하는) 대상을 자신보다 덜 평가할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 단지 단순한 애정만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자신과 동등하게 평가할 때, 그것은 우정이고, 그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평가할 때, 우리가 갖는 정념은 헌신이라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꽃, 새, 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으나 매우 규범에서 벗어난 정신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인간들에 대해서만 우정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인간들은 너무나 그 정념(우정)의 대상이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진정으로 고귀하고 관대한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주 완벽한 우정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불완전한 인간은 없다.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주요 대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최고의 신성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숭배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왕(왕자), 나라, 마을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평가할 때, 헌신을 가질 수 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랑의 세 종류 사이에 있는 차이는 주요하게 그것들의 효과들에 의해 나타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좋아하는 것에 결합되고 합류한(합쳐진) 것으로 여기는 한에서, 우리는 그것과 구성하는 전체의 가장 최소한의 부분을 다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단순 애정에서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고, 반대로 헌신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보다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게 하는 것이다. 예. 왕자 혹은 마을의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때때로 그들이 헌신했던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확실한 죽음에 노출된 이들에게서 그런 헌신의 예들을 흔히 보았다.

또한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랑은 아무리 커도 지나치지 않고, 항상 기쁨을 생산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랑은 지극히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것을 결합시키며, 사랑은 그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사랑이 아무리 커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최상의 지나침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아주 완벽하게 이 좋은 것들에 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갖는 사랑은 (자신과 대상의) 어떤 구분도 하지 않는데, 내가 믿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기쁨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속하는 좋은 것 같이 표상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기억할 것은 사랑이 우리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